고은 불교대하소설

페허 순례

세 사람은 이 세상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은 어떤 음식을 먹다가 다른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낯선 일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삶도 반추해 볼 겨를이 없고 새로운 삶에 전념할 수도 없는 얼떨떨한 것이었다.

건너 내려온 함두와 만화가 바야흐로 그들만의 그윽한 만남을 이루는 판에 난데 없는 불이가 나타났으니 그 세사람 사이의 첫 반가움과는 달리 야릇한 관계가 생기는 것이었다.

불이가 나타났을 때 함두가 "어디서 본듯 합니다"라고 말한 일을 불이는 여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불이는 첫눈에 그녀가 바로 전생(前生)에서의 아귀계를 함께 살아온 처지였고 그 이전의 전생에서는 동쪽나라의 무육도에서 수행을 통한 연인(戀人) 사이였다는 기억을 그의 제7식(第七識)이 의식의 표면에 바늘 끝처럼 솟아나오는 아픔을 통해서 떠올렸기 때문이다.

67

하지만 그는 자못 고즈넉히 그 하염없는 사막의 한 복판에서 맞는 아침 한동안에 따라 그 자신도 고즈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아침 햇빛발이 그의 절도 있는 기품을 갖춘 불이의 옆얼굴을 마치 금(金)이라도 입힌 것처럼 눈부시게 만들고 있었다. 그 눈부신 얼굴에 그려지고 있는 미소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것이 미소인지 어떤 슬픔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만화가 두 사람 사이의 짧은 시선교류 사이에 끼어들었다.

"자 빈 속에 모래라도 채워야 할 일입니다."

그러자 불이도 이제까지의 관심을 함두에게 기울이던 것을 그만 두고 만화의 말에 호응하였다.

"정녕 그래야겠습니다.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해골 옆에 누울 일 밖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세사람에게는 이곳에 태어난 사실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 무엇인가 입에 넣을 것이 있어야 살기 시작할 것이 아닌가.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은 일단 모태(母胎)에 의한 태생(胎生)으로 되는 포유류의 갓난아기로 태어나거나 난생(卵生)이라면 어미가 품은 알을 깨고 나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경건한 과정을 생략당한 채 그저 앞뒤가 딱 잘려나간 것 같은 기성(既成)의 사람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로써는 특이한 것이었다.

어떤 준비도 어떤 환경도 고려되지 않은 의외의 일이었다. 과연 세사람은 어느 누구도 마치 이 세상의 천산남로(天山南路)를 지나가는 구도승의 그 모양 이외에는 식량이라던가 여행에 긴요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빈 털털이 일 뿐이었다. 심지어는 물 한모금 남아있는 가죽주머니 하나없는 어이없는 사막의 고아였지만 다행히 세사람으로 서로 의지하게 된 것이다. 비록 만화와 불이가 함두를 두고 야릇한 관계를 시작한 처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둘이나 하나보다 나은 것이 아닌가.

발씨부터 누란의 스투파 밑 굳은 점토질의 바닥은 모래로만 이루어진 사막과 똑같이 마치 아궁이의 좋은 불땀에 의해서 솥바닥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뜨거워지고 있었다.

다행히 세사람의 밑창이 두꺼운 신발 때문에 아직 발바닥이 곤경에 처하지 않는 상태였지만 한낮이 되고부터는 어느 겨를에는 슬쩍 익어버릴지도 모른다.

함두는 두사람이었다가 세사람으로 된 처지를 약간 신비스럽게 여기기까지 하였다. 그녀는 우선 두 사람의 남자보다 훨씬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빈 배를 채워야 한다던가 하는 일은 그녀에게는 썩 어울리는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막에서는 미추가 아무런 차별도 되지 않는 상태와는 달리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함두에게는 그들이 서 있는 절터의 스투파에서 멀지 않은 곳의 오아시스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물이 있습니다."

라고 가만히 말하자 만화가 "어디에 물이 있습니까?"라고 황급하게 묻는 것이었다.

"물이 있는 곳을 지나면 한 때거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함두는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는 불이가 심문하듯이 뛰어드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오는 길입니까? 가는 길입니까?"

함두는 마치 두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혼자의 말로 말하고 있었다.

"아 낙타 스무마리가 방금 일어났습니다. 모래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만화로서는 이렇게 말하는 함두가 이런 극한과도 같은 땅에서 실성(失性)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것이 은근히 걱정으로 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이가 앞장섰다. "그럼 물있는 쪽으로 가십시다"라는 말을 함두에게 던지며.

불이 함두 그리고 만화의 순서로 그들은 동쪽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이미 사막에의 적응력이 생겼는지 꾀나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참고 가는 동안 어느 사구(沙丘) 아래에서 말라죽은 작은 숲을 이룬 나무들을 모래 속에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나무들만이 아니라 집의 흔적에 이어진 것이었다.

이 일대에 그런 집들의 흔적이 있었다면 이곳은 그 언젠가는 오아시스가 아니면 물이 흐르는 곳이었음에 틀림없다. 과연 그들이 만났던 스투파 잔재의 언덕이 더이상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러 아주 질서정연한 구획으로 된 도시의 흔적이 불사(佛寺)와 승방(僧房)을 배치한 중심으로 해서 넓혀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화는 이런 일에 얼마간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니 그 도시의 흔적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지난 날 한(漢)이나 당(唐)의 군대가 여기까지 와서 주둔한 병영(兵營)의 흔적도 있었다.

폭싹 내려앉아 버린 농가(農家)들도 있고 그 부근에는 미이라가 되다 시피한 오래된 사체(死體)들을 그대로 눕혀놓은 무덤 따위도 있었다. 놀랍게도 미이라가 된 사체의 수의(壽衣)는 서양 로마의 신(神) 헤스메스의 모습을 짠 모직물이나 중국풍의 여러가지 문양(紋樣)을 남긴 견포(絹布)로 되어 있었다.

그 옷은 누가 손만 대도 바스락바스락 부서질 것 같았다. 하지만 사막의 무서운 모래바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용케 남아있는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었다.

아니 그런 사실을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 일대를 지나간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세사람이 이곳으로 들어선 첫번째였으니 몇천년동안 이 물이 말라버린 뒤의 폐허는 오로지 사막에 에워싸여 있었을 따름이었다.

"어디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만화가 항책하는 것처럼 함두에게 물었다.

"아무래도 이곳은 옛날옛적에는 물이 있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물 한 방울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두는 입을 다물고 걸어가고 있었다. 만화 따위는 깡그리 무시한 채의 어떤 오만으로써.

앞장섰던 불이는 왼일로 뒤에 처져있었다. 아니 처져있기보다 숫제 만화와 함두가 가는 길에서 이탈된 상태로 그 도시의 흔적 여기저기에서 살피고 있었다.

불이의 눈은 놀라웠다. 모래를 헤친 뒤에 그 모래 밑에 숨겨져 있는 옛날의 교역(交易)에서 거래되었던 먼 나라의 보석으로 된 목걸이와 청동으로 만든 등(燈) 따위도 발견한 것이다.

고대인도의 문자인 카로쉬티문자로 표기된 목간(木簡)도 있고 종이에 한자를 쓴 문서 조각도 나타났다.

기원전 77년 이전의 한 왕국이 있었던 곳이 그 왕족이 망한 몇백년 뒤까지 유지된 국제시장이었던 사실이야 불이가 짐작할 리 없겠으나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누란왕국은 본디는 아리안계통의 종족들이 그들의 흰 피부와 푸른 눈을 가지고 동서를 잇는 시장경제의 왕국을 세웠는데 끝내 중국에 의해 정복당한 뒤 그 변방기지로 되었다가 드디어 물이 없어지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그 도시는 끝내 유령조차 없는 곳으로 되고 만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역사책에도 이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한 일이 없다. 다만 몇개의 그럴듯한 전설이 있을 뿐이다.

어쨌거나 불이는 그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보석목걸이 하나를 그의 목에 걸고 앞서 간 일행을 잰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만화님!"

"함두님!"이라고 큰소리로 불렀으나 그 소리는 사막 위의 허공이 잽싸게 삼켜버렸으므로 어디에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좀더 걸음을 재촉하였다. 비록 배가 고팠으나 그 배고픔으로 가득한 배를 가지고 힘을 냈다.

어느 만큼 그가 달려갔을까. 사막의 길은 걷는 일에 절망감을 더하는 것이었다. 발을 디디면 디딘 곳이 무너지기 때문에 걸음을 떼어놓을 때마다 힘겨워진다.

그래서 먼 나라로 파견하는 첩자를 훈련시킬 때 무엇보다도 먼저 모래밭을 달리는 것을 몇달이고 시켜서 그 걸음의 속도와 두 다리의 힘을 배가시키게 하는 것인가.

불이가 걸음을 재촉하다가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이제 50보(步)로써 1백보를 비롯는 것과 다를 바 없구나…. 아아 나에게 의심이 부족하므로 갈 길이 멀고 진리가 아득하구나."

그가 지쳐서 좀 쉬고 싶을 때 저쪽 앞에 함두가 이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불이가 그녀의 모습을 보자 다시 한번 힘을 냈다.

불이가 함두의 목에 보석목걸이를 걸어준 것은 그 뒤의 일이었다.

"우선 걸고 다니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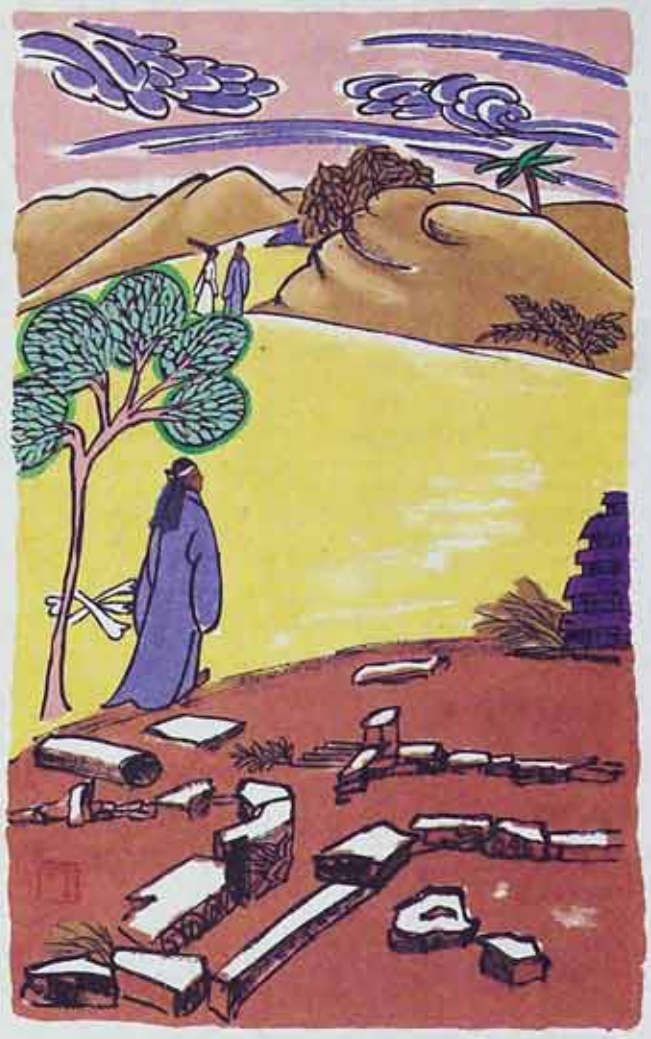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한참을 걸어가자 만화가 보였다. 만화는 실로 아담한 둥근 오아시스에 고개를 처박고 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다.

함두가 불이의 손을 잡아 끌어서 그곳으로 보냈다. 불이도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그 다음에야 함두가 다가가서 두손으로 물을 떠서 목을 축이는 것이었다. 함두의 그런 모습은 그림이거나 꿈 속의 어떤 동작과도 같아서 무척이나 거룩하였다.

기원전 동서를 잇는 국제시장이었던 누란왕국은 중국에 정복당한 뒤 물이 없어지는 자연현상에 의해 유령조차 없는 도시로 변모되었다 불이는 그 사막에서 보석 목걸이 하나를…



함두는 마음의 눈으로 오아시스를 보았고 세 사람은 그곳을 찾았다

그림 · 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 생활용품 • 개인업체 • 불교관련용품 • 정보교환, 소식 • 자체홍보 • 안내 • 각종행사 • 신상품소개등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 (02)737-0697

선 관 단 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수련장 사천시 용현면 자동산 동남선원
안내 ☎ (0890)34-1135-4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
목 · 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 · 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장삼수 건강연구원
입구정역 543-7306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 (02)266-2629
팩스 (02)266-267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 · 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지원에 임하여 주십시오.
지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聖鐘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한민족정통 (단전 기 호흡) 수련법
제1기 지도자 과정모집
◆수련과정, 단전호흡, 철산법, 신선운기법 36동작 육기법, 생식법, 심관법, 쑥뜸법
◆지방출장 지도 가능함
◆일시 : 3월 24일부터 6개월 과정
◆대주 일요일
특전 1. 수료증, 지도자 자격증 발급
2. 수료자는 본회의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및 해외에 도장을 개설할 수 있음.
3. 도장 개설시 본 협회에서 행정적, 기술적 지원함
■회비 500,000원
■전화 (02)735-6795, 6796 / 팩스 (02)730-9298
한국신선도협회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빌딩 4층 한국신선도협회 지도 회장 이해창

불심 포교원
••• 부전스님 모집 •••
전화:051-465-5100
주소:부산 광역시 동구 초량 2동 384-10 (부산 본역 건너편 국민은행 뒤)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 법당 · 경당
• 서울시 대원사 대웅전 주련단청 문짝
• 서울시 불암사 · 법당 주련단청 · 목탁
• 충남 갑사 대웅전 문짝
• 충북 법주사 대웅전 주련단청 · 법상 경탁
• 마산 진전사 대웅전 주련단청 · 문짝
• 포천 명성사 대웅전 문짝 단청
• 대전 보문사 대웅전 문짝 단청
• 서울특별시 불교 · 조계 대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 · 8월 검정고시 국졸 · 중졸 · 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 한글반 · 재수생 · 직장인 · 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 쉽게 풀이된 책상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 정원 1 : 1 「답안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정희(72세, 할머니) : 中 · 高과정(24개월)
박은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 · 高 · 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졸업목표 ➡ (영 · 수) 「비디오강의교재」 특별제공
청저한 학습권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 수학)가 약한 분을 위하여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회사하여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정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거짓 없는 진솔 가고자 하는 동료께 도움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월(남, 27세) 드림—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 · 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학사학위위탁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 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혜우회인정병원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